



이름:

WEEK 10

Mar 3

레위기 15장

본장은 갖가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과 정결의식을 다룹니다. 유출병이란, 몸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고름 등이 나오는 병을 의미합니다. 13-14장에서 다루는 나병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반면, 본장에서 다루는 유출병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병입니다. 타인이 알 수 없는 유출병도 엄격하게 정결의식을 해야 한다는 본장의 규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레위기 16장

본장은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기록합니다. 이날 아론은 두 염소를 준비하는데, 각각의 염소는 누구를 위한 염소인가요? (6-10절)

*이 날에 제물로 사용된 두 염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이중적 면을 보여줍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바쳐지고, 나머지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아사셀'이란 칠십인역에서 '떠나보내기 위한 염소'로 번역합니다.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모든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보내면서, 온 백성의 죄가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져버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Mar 4

레위기 17장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됩니다. 짐승을 잡을 때 성막에서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과 모든 짐승의 피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11절).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 즉,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6:54)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18장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주하던 ()의 풍속도, 너희가 가게 될 ()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내 ()를 따르며, 내 ()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의 문란한 성 풍습(근친상간, 불륜, 동성애, 수간 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천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타락한 문화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 가치관, 방식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Mar 5

레위기 19장

본장은 거룩한 삶에 관한 실천적인 규례들을 기록합니다. 부모공경, 안식일, 우상숭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도둑질, 장애인(14절), 재판, 형제사랑, 복술(점) 금지, 음행, 거류민을 사랑할 것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본장과 18장은 중복된 내용으로, 둘 다 이방종교의 관행과 성적 타락의 관계를 연결시켜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를 기록하는데, 우상숭배(1-9절/영적인 음란행위)와 성범죄(10-21절/육적인 음란행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무너져 버린 성도덕으로부터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의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Mar 6

레위기 21장

본장 1-9절은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를, 10-15절은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를, 16-24절은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관한 규례를 기록합니다. 장례, 결혼과 관련하여 제사장은 백성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함이었기에, 제사장에게 더 높은 거룩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8, 15, 23절)에 후렴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갈 수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길 기도합니다.

레위기 22장

본장은 성물에 대한 규례(1-16절)와 올바르게 제물을 드리는 법(17-33절)에 대해 기록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하나요? (17-20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예를 드릴 때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Mar 7

레위기 23장

본장에는 1년동안 지켜야 하는 일곱가지 절기를 설명합니다. 유월절(5절), 무교절(6절), 초실절(9-14절), 오순절(15-21절), 나팔절(23-25절), 속죄일(26-32절), 초막절(33-3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신약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절기들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의 유일한 절기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로, 이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의 의미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감사와 기대,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라이프교회 주일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레위기 24장

본장 1-9절에는 성소안에 놓인 등잔대와 진설할 떡의 취급법을 기록합니다.

성막 안의 등잔불은 끊이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은 부패하지 않도록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항상 켜져 있는 등잔불이 항상 진설되어 있는 거룩한 떡을 비추는 모습은, 하나님의 빛이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Mar 8

레위기 25장

본장에 기록된 안식년과 희년은 안식일의 확장으로, 일주일 중 마지막 날(7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처럼, 7년 중 마지막 해를 안식년으로, 7번째 안식년이 되는 해(또는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이 되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백성들의 질문(20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배우는 날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베풀습니다. 6년동안 먹고 사는데 바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땅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6장

본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찾아 보세요.

- 1) 3-5절: 물질적 풍요
- 2) 6-8절: 안전과 평화
- 3) 9절:
- 4) 10-13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